

자료 2024-06-07 / SINCE 1990~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7년 연속 1위 달성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3일 본점 대강당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박만 노동조합 위원장, 이립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상무 및 관계자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1위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창립 56주년을 맞이하는 광주은행은 금융산업 위기 속에서도 브랜드파워 7년 연속 1위라는 영예를 안으며 명실상부한 우수 브랜드로서 입

지를 굳히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공신력 있는 브랜드 평가지표에서 광주은행이라는 브랜드가 소비자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인정된 만큼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7년 연속 1위의 결과에는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사회 문제에 공감하며, 지역민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시에 발빠른 금융지원을 실시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실천해온 선한 영향력들이 광주은행 브랜드에 힘을 실어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동반성장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방카슈랑스 보장성 보험 가입 감사 이벤트 실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7월 31일까지 방카슈랑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에서 판매중인 방카슈랑스 보장성보험에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주요 3대 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과 간병보험, 각종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은 물론이고 보험료가 저렴한 순수보

장형 보험, 저축 기능이 부가된페이백(pay-back)형 보험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광주은행 김홍화 WM고객부장은 “질병 발병 나이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보장성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자산관리는 물론 건강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 도넛의 성지 ‘노티드’ 입점



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가 ‘줄 서서 먹는 도넛’으로 불리는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노티드’ 정식 매장을 30일 오픈했다.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에 입점한 노티드 매장에서는 도넛 21종, 소금빵 5종, 케이크 3종 등 총 29종과 커피 등 음료가 판매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김영민 식품생활팀장은 “평소 지역에서 만나볼 수 없는 다양하고 맛있는 경험을 선사하는 광주신세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한 맛을 제공하는 노티드 도넛을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에이치글로벌

◆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



(주)디에이치글로벌(회장 이정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22일 오후 광주시 소재 디에이치글로벌 회의실에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사항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 △인력양성, 마케팅 등 후속 연계 지원 △산업 현장 정보교류 확대 △우수기업 발굴 및 사업 홍보 등이다.

김일환 디에이치글로벌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급망이 안정되면서 스마트홈 가전산업 분야에서 당사의 사업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전KDN

◆ 2024 청년도전지원사업 기업탐방 진행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지난달 29일 광주청년센터와 함께 구직단념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는 '2024 청년도전지원사업 기업탐방'을 진행했다.

한전KDN의 취업역량 향상과 진로탐색을 위한 '기업탐방 프로그램'은 구직단념 청년의 사

회활동 참여의욕 고취, 자신감 향상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됐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희망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에너지ICT 전문기업의 특성을 담은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4년도 상반기 청렴 소통간담회'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최근 서울인천 지역본부 5층 영상회의실에서 정보보안 유관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청렴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전KDN 보안사업처 및 협력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동영상 시청 등 청렴·윤리교육

을 시행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체감하고 있는 업무 개선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청렴문화와 보안사업에 대한 상호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동반상생 및 에너지산업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사와의 긴밀한 만남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체감하는 사항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재하도급 모니터링 강화 등 산업 전반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전KPS

◆ 신성장사업 호조...경영실적 쑥쑥



한전KDN(사장 김홍연)가 정부 에너지정책에 발맞춰 신성장사업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괄목할 만한 경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전KPS는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전국 공기업 32곳의 경영 성과를 조사·분석해 발표한 결과 총점 800점 만점 중 647.5점을 획득하면서 전체 1위에 올랐다고 3일 밝혔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국내외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정부 에너지정책에 발맞춰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 결과 우수한 경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원자력·화력 발전 정비시장을 꾸준히 넓혀가고, 적극적인 5대 신성장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성장하는 100년 기업 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 노-사-협력업체 중대재해 'ZERO' 결의



한전KDN(사장 김홍연)는 5월 3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열고 노사 및 협력회사가 함께 중대재해 'Zero' 달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협력회사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안전지적서 발행 및 상벌제도 운영에 따른 근로자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안전다짐 서약, 전문가위원 안전보건 특강 등을 진행했다.

해양에너지

◆ 안전장비 선진화 및 과학화를 위한 지속 투자



(주)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회)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실현을 위해 안전장비의 선진화 및 과학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해양에너지는 가스누출탐지 차량을 신규로 2대 구입하여 총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기준과 동종업계보다 높은 수준의 최신형 장비를 보유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정회 (주)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확대해 나갈 것이다”며, “가스 사고 없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모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2024년 채용연계형 인턴사원 모집공고

너 내 동료가 되어라

05.29 ~ 06.18
모집분야 (00명)

인턴분야

- 안전기획 / 안전기술
- 도시가스 안전운영관리
- 도시가스 사고예방관리

영향분야

- 경영기획 / 전역 수립
- 법규 / 입찰관리

영업분야

- 영업기획 / 판매 수립
- 도시가스 수요개발
- 신재생에너지 분야
- 전역 신사업 분야

<https://recruit.hyenergy.co.kr>
온라인 접수

고객과 함께 미래를 밝히는
환경영향 종합에너지기업

Total Energy Service

**"2024년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해양에너지는
필환경에너지 시대의
정경에너지를 통해
회사의 미래가치를
함께 높여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근무조건

- 계약기간: 인턴 4개월
- 급여: 계약금 2,000만원 + 월급 총 1,000만원 (월급 250만원)
- 근무시간: 주 40시간(월~금, 9시~18시)
- 연차: 연차 15일(4주제 근무제)
- 학자금: 학자금 지원 (4개월 동안 지원)
- 학자금: 학자금 지원 (4개월 동안 지원)

(주)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회)는 오는 6월 18일까지 2024년 채용연계형 인턴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공고는 △경영관리 △안전관리 △영업관리 직무 대상이며, 채용 과정은 서류전형→인·적성검사(6월)→1차 면접(7월)→건강검진→최종면접(8월) 순으로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는 입사 후 4개월의 인턴과정을 거쳐 평가 우수자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예정이다.

정회 (주)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광주·전남의 대표 지역기업으로서 ESG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채용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며, “지역인재육성과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알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수용 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650회 금요조찬 포럼>

트럼프 신드롬

(박종구 총장)

1650회 금요조찬포럼은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을 초청하여 「트럼프 신드롬」을 주제로 미 대선에의 현황과 우리경제에 파급에 대한 이야기하였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트럼프 선거 핵심 슬로건입니다. 흔히 줄여서 메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메가 현상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 최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미국은 세계 2차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로서 자본주의 경제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 최우선주의에서 이어지는 신고립주의입니다. 미국은 미국안에서 모든 자원이 해결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과거 미국은 다른 국가에 개입하지 않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대표적인게 세계 2차대전 초창기에는 참전하지 않았습니

셋째,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중국산 전기차 관세 4배 인상을 포함해 중국산 제품에 대대적인 관세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었고 미국 제조업 근로자 30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선언하면서 미국 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두 가지 전략을 가져가게 됐습니

넷째, 인종주의입니다. 미국의 인종 구성을 보면 백인 57.8%, 흑인 12.2%, 히스패닉 18.7%, 아시안 6.1%로 현재는 백인의 숫자가 많지만 2040년 백인 인구가 50% 이하로 떨어질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작년 불법 이민으로 미국에 온 사람이 약 250만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백인들의 반이민 정서는 강력해지고 이민자들이 백인들의 일자리를 뺏다는다는 인식이 강해져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정확하게 미국 저학력 백인들의 불만을 옹호합니다. 이들은 현재 트럼프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경합주인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아리조나, 미시건, 조지아, 네바다 중

위스컨신을 제외하고 모두 이기고 있지만 아직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7월 공화당 전당대회,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고 전당대회는 컨벤션 효과를 불러옵니다. 또 대선 직전인 10월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박빙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누가 되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 경제에 엄청난 파급을 불러올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경제 동향

◆ 경총, 「최근 과학기술인력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5.28)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과학기술인력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5월 28일 발표함.
-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①최근 국내 과학기술분야 일자리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공계 고등교육 인력 배출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주요 과학기술인력인 ②과학전문가, ③정보통신전문가, ④공학전문가 분야의 세부 고용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했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 ① (과학기술인력) 국내 과학기술인력 규모는 약 196만명(2023년 4월 기준)으로 지난 4년간(2020~2023) 연평균 5.3% 증가했으나, 이공계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566만명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3.6% 증가에 그쳤음.
 - 최근 이공계 학사·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과학기술 인력 증가세에 비해다소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고등교육 인력양성이 일자리 창출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② (과학전문가) 국내 과학전문가(생명 및 자연과학 전문가, 시험원 등)는 10.3만명(2023년 4월 기준)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7.4% 증가
 - 20~30대 인력이 69.2%로 정보통신전문가나 공학전문가보다 젊은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석사박사 학위를 소지한 고학력자 비중이 56.2%(5.8만명)로 전체 노동시장은 물론 정보통신전문가, 공학전문가 인력에 비해 높았음.
 - 월 평균임금은 440만원이며, 남성·고학력(박사급) 인력 중심으로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남.
- ③ (정보통신전문가) 국내 정보통신(ICT)전문가(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는 40.1만명(2023년 4월 기준)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5.6% 증가
 - 남성은 83.6%, 여성은 16.4%로 남성 인력이 월등히 많아, ICT 분야에 여성인력 진출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ICT 직종 사업체의 인력 미충원율은 26.7%로 전 직종은 물론, 과학전문가나 공학전문가보다 높았으며, 구인배수는 0.24로 낮아 구인자(기업)에 유리한 상황. 구인배수가 낮음에도 인력 미충원율이 높은 것은 지원자가 많아도 기업이 원하는 인력이 부족해

채용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④ **(공학전문가)** 국내 공학전문가(화학공학, 전자공학 기술자 등)는 73.6만명(2023년 4월 기준)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6.2% 증가
 - 남성은 87.6%, 여성은 12.4%로 남성 인력이 월등히 많았음. 이는 공학기술 분야에 여성인력 진출·육성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시사
 - 50대 이상 인력 비중이 24.4%로 과학전문가나 정보통신전문가에 비해 고령 인력 비중이 높아 인력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분석
 - 월 평균임금은 507만원으로 他 과학기술 인력(정보통신전문가 505만원, 과학전문가 440만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경총은 최근 과학기술인력의 고용 특성을 고려해 ▲이공계 분야 교육시스템의 혁신, ▲과학기술 분야 인력구성 다양화 지원, ▲이공계 분야 여성인재 육성 강화, ▲국가 과학기술인력풀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경총,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6.3) 안내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오는 6월 3일(월)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 일시 : 2024. 6. 3(월) 14:30 ~ 16:30 (※ 참가자 등록은 14:10부터)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舊 외신기자클럽)
- 이날 토론회는 1부 발제*와 2부 토론순서로 진행되며, 우리 경제가 1~2%대의 저성장 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예정
 - *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4년 5월)」 발표 (5.23)

-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2024년 2.5%, 2025년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지난 '24.2월 전망 대비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0.4%p 상향 조정, 2025년 성장률 전망치는 0.2%p 하향 조정
 - ※ 지출항목별 증감률 전망치(%)
 - [민간소비] 1.8('23)→ 1.8('24) [재화수출] 3.1('23)→ 5.1('24)
 - [건설투자] 1.3('23)→ △2.0('24) [설비투자] 0.5('23)→ 3.5('24)

- 2024년 2/4분기에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비*는 둔화되는 한편 순수출** 기여도가 축소됨에 따라 조정되었다가 하반기에는 다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소비는 2/4분기 조정을 거친 후 하반기중 물가 둔화, 기업수익 증가 등에 따른 가계 소득여건 개선에 힘입어 점차 회복세가 뚜렷해질 전망

** 2/4분기 순수출 기여도는 수입이 큰 폭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대외 여건 개선에 따른 견조한 수출증가세가 여전히 경기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높아진 환율 수준 등으로 상방압력이 다소 커졌으나, 소비 회복세가 완만하고 정부대책이 물가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6%)에 비해 연간 상승률을 조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

※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대 후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하반기중 2.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경상수지는 2024년 2월 전망치(520억달러 흑자)를 상회하는 600억달러 흑자로 전망.

○ 2024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4년 2월 전망치(25만명)에 대체로 부합하는 26만명으로 전망, 2024년 실업률은 2.9%로 전망.

○ 한국은행은 향후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지정학적 갈등 및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한 대안적 시나리오를 분석

〈 시나리오 1: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조기 진정(낙관) vs 심화(비관) 〉

- (낙관) 이스라엘·하마스간 종전 협상 타결,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진정되어 부정적 공급충격 완화되면서 올해 성장률은 기본전망(2.5%) 대비 0.1%p 상승, 물가상승률은 0.1%p 하락

- (비관) 중동지역 분쟁이 상당히 악화, 러·우 전쟁 규모 확대될 경우,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 및 금융여건 악화로 올해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0.2%p 하락, 물가상승률은 0.3%p 상승

〈 시나리오 2:글로벌 긴축기조가 장기화 〉

- 글로벌 교역 및 성장세는 둔화되고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0.1%p 하락 예상. 물가상승률은 긴축기조 장기화에 따른 환율상승과 국내 경기둔화의 영향이 엇갈리게 작용하면서 대체로 기본전망(2.6%)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발표 (5.23)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

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통계청,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5.23)

- 2024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 2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6% 감소**) 증가
 - *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1인 가구 및 농림어가 포함)
 - * * 실질소득은 1분기 기준으로 2017년 1분기($\Delta 2.5\%$) 이후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23년 3분기(3.4%)부터 3개 분기 연속 증가세 유지(전년동기대비 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득 분기별 증가율 추이 : 4.7('23.1q)→ $\Delta 0.8(2q)$ → 3.4(3q)→ 3.9(4q)→ 1.4('24.1q)
- 소득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소득이 근로소득이 감소($\Delta 1.1\%$)했으나, 사업소득(8.9%), 이전소득(5.8%)*이 증가. 비경상소득**은 28.2% 감소.
 -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등)은 전년동기대비 8.9% 증가, 사적이전소득(부양의무자, 친인척 등에게 받은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0.9% 감소
 - * *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 2024년 1/4분기 소득 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분위(하위 20%)가 115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했으며, 소득 5분위(상위 20%)는 1,125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0% 감소
 - (1분위 소득) 경상소득은 사업소득($\Delta 3.6\%$)이 감소했으나, 근로소득(6.6%), 이전소득(9.4%)*, 재산소득(11.2%)이 증가. 비경상소득(8.8%)은 증가
 - (5분위 소득) 경상소득은 근로소득($\Delta 4.0\%$)이 감소했으나, 재산소득(101.9%), 이전소득(19.9%)*, 사업소득(2.3%)은 증가. 비경상소득($\Delta 38.7\%$)은 감소.
 - * 공적이전소득은 21.5% 증가, 사적이전소득은 16.0% 증가(전년동기대비 기준)

◆ 고용노동부, 「2024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5.30)

〈 고용 부문('24.4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는 2,01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8천명(1.0%) 늘어나며 2021년 3월부터 38개월 연속 증가

- **(입·이직)** 입직자는 9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8천명($\Delta 1.9\%$) 감소했고, 이직자는 89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3천명($\Delta 3.5\%$) 감소

〈 근로실태 부문('24.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401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3천원(2.9%) 증가
- **(총 근로시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3.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2시간($\Delta 7.3\%$) 감소
 - ※ '24년 3월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감소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2일 감소(22일→20일)한 영향

['24.1분기 근로실태]

- **(명목 임금)** 1분기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421만 6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만 3천원(1.3%) 증가
 - ※ 사업장 규모별 명목 임금상승률(1분기, %) : [300인 미만] 3.1, [300인 이상] $\Delta 3.3$
- **(총 근로시간)** 1분기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4.8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2.8시간($\Delta 1.8\%$) 감소
 - ※ '24년 1분기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감소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기대비 1일 감소한 영향

2. 노사 동향

◆ 주요 노동현안 등 논의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 경사노위는 노사정 합의(2. 6)에 따라 지난 4. 4 특별위원회 발족을 추진했으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노정간 입장차이 등으로 지연
 - ※ 경사노위는 지난 2. 6 사회적 대화 논의 의제와 관련해 3개의 위원회(‘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
 - 그 동안 정부와 한국노총은 공무원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
- 한편, 정부와 한국노총이 5. 29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 간담회에서 공무원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공익위원 선정에 대한 이견을 해소한 가운데 경사노위는 5. 30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발족 및 「제1차 전체회의」개최 예정
 - 특별위원회는 발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산업전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및 활력 제고 등을 논의할 계획
 - 또한, 경사노위는 조만간 나머지 2개의 의제별 위원회도 발족 예정

◆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경총은 경영계 입법 건의 사항 전달 예정

- 제22대 국회가 5. 30 개원한 가운데 경총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을위한 입법 건의 전달 예정
 - 경총의 입법 건의에는 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등), ② 기업의 氣를 살리는 경제정책(상속세제 개선 입법,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규정 개선 등) 등이 포함
 - ※ 경총의「22대국회에드리는입법제안」의세부내용은국회동향참조
- 한편, 노동계는 노조법 제2·3조 등 현안 입법 이슈화 시도
 - 한국노총은 5. 28 ‘22대 총선 이후 노동조합의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총선 관련 한국노총 활동 평가 및 향후 국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
 - ※ 주요 참석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비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 한국노총은 금번 총선에서 노동정책 관련 공약이 부각되지 않았다고 평가

- 한국노총은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안으로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주4일제, ▲정년 연장 법제화 등을 선정하고, 연내 입법 관철에 집중하는 방침

◆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 등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 대통령이 지난 5. 14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보호 강화 등 노동정책 추진방향*을 밝힌 가운데 고용부는 5. 29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 약자 보호 관련 현장 의견 수렴
 - * 대통령은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발의,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 보호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 고용부는 지난해 3월 21일 노동개혁 추진 관련 소통창구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발족했으며 중소 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플랫폼기업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
- 고용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AI를 통한 대국민 노동법 상담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등을 기반으로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노사법치 확립에 주력한다는 계획
- 한편,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5. 28 ‘지역순회 원탁회의*’ 개최
 - * 지역순회 원탁회의는 참여자들의 공개토론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5. 28 서울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개 지역에서 개최 예정
 - 이 날 회의에는 플랫폼 종사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근로 시간, 임금, 산업안전보건 등 주요 노동 현안과 관련한 토론 진행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 (062)
1	청년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 ◦ 2년후 : 1인 480만원 	716-3424
2	뿌리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뿌리기업 중 청년,신중년, 중장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만 35세 ~ 49세 채용 시 ◦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 	716-3503
3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인 이하 중소기업 ◦ 만 40세 이상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 	609-8964
4	청년성장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신규 인력채용 기업 (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 ◦ 신규 채용기간: 최근 1년 이내 ◦ 청년층 연령: 만 15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친화 조직문화 및 직장 온보딩 프로그램 제공 	654-3427
5	북구 굿잡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및 북구 일대 중소기업 ◦ 광주광역시 구직자(취업준비 청년, 여성, 중장년 등) ◦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혹은 지역 인재를 구인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일자리 동영상 제작 ◦ 취업매칭 지원 ◦ 고용부 워라벨 인증지원 	654-3427
6	공동안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 ◦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716-3501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